'치열함'이 주는 인생의 묘미

벤처기업의 성공신화, 소설 《천지인》의 작가 이기열씨

VD Special 벤처인의 필수 utility 테마인터뷰

간밤에 내린 비로 길거리는 온통 낙엽일색이다. 계절의 변화처럼 작가 이기열씨의 삶도 여러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국 IT산업의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한 IT전문지의 편집장에서 지금은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여러 빛깔의 인생을 얘기하는 소설가의 삶을 살고 있다. IT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그를 만나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원동력과 벤처업계에 바라는 애정어린 조언을 들어보자.

벤처기업가 21인의 성공스토리를 다룬 대표작, *《내가 간 길은 내가 처음 간 길이었다》*의 작가 이기열씨는 말끔한 정장차림이 어울리는 꼿꼿한 노신사였다. 30여 년 월간 「정보와 통신」의 편집장을 지내며 20세기 한국의 IT변천사와 행보를 같이 해온 삶을 살았기에 그의 작품에는 IT산업에 대한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관심이 녹아 있다. 이제껏 작가는 도전적인 삶을 산 각계 전문가들의 성공을 논픽션형식으로 집필해왔고 최근에는 벤처의 성공신화를 다룬 첫 소설, *《천지인》*을 발표하며 변함 없는 벤처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소설에 도전하다

"정년을 앞두고 뭘 할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동안 해온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작가는 성공을 일군 사람들에게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글로 옮겨왔다고 한다. 젊지 않은 나이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반성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환갑의 나이에도 창작을 결심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지금 60~70대는 할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세대도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살아온 세대니까요.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값진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감 때문이었을까. 작가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이곳저곳 성공 주인공을 찾아 헤맸고, 매일 8시간 창작이라는 자신과의 고된 약속을 지켜왔다. 인생을 즐겨도 됨직한 연배의 그에게 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를 이토록 치열하게 만든 것일까. 그는 소명과 사명을 말한다.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창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퇴직이 있나요. 하늘이 부르는 날 바로 퇴직하는거죠.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불어 나누고 싶어요. 행복하냐고요? 문학은 저에게 '일'이기에 행불행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발표한지 이제 겨우 한달 남짓 이런 치열함과 부지런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후속작도 여러편이다.

소설가, 벤처를 이야기하다

작가는 벤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작품 안팎에서 벤처인에게 할 말이 참 많다. 할 말 많은 그에게 이번 작품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벤처인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벤처인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맨손으로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 나간다는 얘기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팍팍하고 고되겠어요. 치열함 하나로 성과를 일구는 벤처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모습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벤처기업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지금의 벤처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에서 그처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벤처기업의 힘이 매우 컸어요. 제가 생각하는 벤처정신은 밤을 낮 삼아 일하는 불굴의 정신인데 근래 들어 당시에 보여준 벤처정신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가는 IMF 위기에서 보여준 벤처의 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업소설의 작가답게 벤처에 대한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재산을 포기했으니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치열함이라는 벤처정신으로 재무장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작가 이기열은 치열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라고 얘기한다. 치열한 삶으로 국부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시대 벤처기업의 역할이라고도 말한다. 작가는 벤처인들도 인생의 재미를 함께 누려보자며 독려한다.

그가 그려 가는 소설 속의 벤처기업들처럼 우리 벤처기업도 치열함으로 인생의 참된 재미를 느끼길 기대해본다.

작가 이기열은 누구?

30년 가까운 세월, 월간 「정보와 통신」(舊 월간 「체신」) 편집장을 지낸 이기열 작가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변화와 발걸음을 같이 했다. 대표작으로는 IT분야의 벤처기업가 21인의 성공스토리를 담은 *《내가 간 길은 내가 처음 간 길이었다》*(2000), 다양한 직종에서 독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전문가 13인의 입지전 *《아무나 하는 일에도 가는 길은 따로 있다》*(2001) 등이 있으며 왕성한 창작열을 불사르고 있는 이순(耳順)의 젊은 작가다.

소설 《천지인》은 어떤 내용?

국내 휴대폰왕국의 성공신화와 한글의 중국 수출기를 흥미롭게 그린 한국형 기업소설!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국이며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휴대폰 신화 속에 꽃핀 한 벤처기업가의 파란만장한 성공스토리와 휴대폰을 통해 한글을 세계로 수출하는 내용이 흥미롭게 그려진 소설이다.

소설 *《천지인》*은 자수성가한 한 벤처기업가의 성공담이자 세계적인 휴대폰왕국으로 성장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또한 한글이 세계적인 디지털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린 소설이다. 문자와 음성이 융합하는 디지털시대에 문자·음성의 융합이 어려운 나라에 한글을 중간계 언어로 빌려줌으로써 디지털 혜택을 나누자는 원대한 꿈을 담고 있다.

– 모닝365